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키움증권

미 증시, 케빈 워시 완화적 발언에도, 메타발 시 수요 위축 우려 등으로 약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일(수)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다”는 케빈 워시의 완화적 발언 속 메타(+8.8%)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소식이 마이크론(-10.4%), 샌디스크(-10.5%) 등 반도체주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소폭 하락 마감(다우 -0.03%, S&P500 -0.2%, 나스닥 -0.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3%).

전일 마이크론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대 급락을 초래한 주체는 메타였으며, 이는 이들이 잉여 AI 연산능력을 활용해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 그동안 AI 투자사이클을 이끌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 -> 반도체주 실적 개선” 내러티브를 이끌었던 하이퍼스케일러 업체 중 하나인 메타가 이제 컴퓨팅 파워를 사는 쪽에서 파는 쪽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음을 시사. 이는 현재 이들이 대규모로 투자한 것에 비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

다만, 이는 작년 초 딥시크 사태, 올해 초 터보퀀트 사태와 유사하게 AI 투자 내러티브에 노이즈가 생성된 것이지, 실제 AI 수요 둔화, 실적 둔화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전일 6월 한국 수출 서프라이즈(YoY, +70.9% vs 컨센 +60.7%) 속 반도체의 수출 모멘텀이 가속화(YoY, 5월 +169.4% -> 6월 +199.5%)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 따라서, 이번 반도체주의 급락은 지난 2분기 동안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한 데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 속에서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소식이 차익실현 압력을 자극한 성격이 짙다고 판단(2분기 주가 상승률, 마이크론 +241.6%, 삼성전자 +99.7%, SK하이닉스 +227.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87.8%).

더 나아가, 차주 삼성전자 잠정실적(7일), SK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10일) 및 실적(29일), 미국 M7 실적(7월말) 등 AI 과잉투자라는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환기시키는 이벤트들이 대기하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 따라서 현 시점부터 주도주를 포함한 주식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대응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이제 시장은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을 주시할 예정. 이 결과에 따라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시점(Fed Watch상 9월 FOMC가 컨센서스), 시장 금리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 지난 2~5월 신규 고용이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만큼, 6월 고용(컨센 12.5만건 vs 5월 17.2만건)도 상방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타당.

그러나 지난 30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6월 고용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현재는 고용보다 인플레이션 향방이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런 측면에서 전일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이 낮아졌다는 케빈 워시 발언과 6월 ISM 제조업 PMI 가격지수(5월 82.1 -> 6월 73.0)의 하락은 긍정적인 요인. 이번 고용이 상방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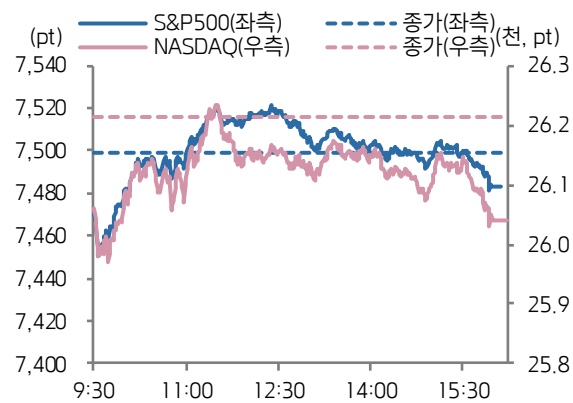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강세, 6월 한국 수출 호조에도, 반도체 대형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달러/원 환율 부담 등으로 장 중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장 후반에는 비 반도체로의 순환매 장세가 전개됨에 따라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2.0%, 코스닥 +1.4%).

금일에는 메타발 노이즈로 인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대 급락 여파가 국내 반도체주들에게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약세로 출발할 전망이다.

이처럼 최근 반도체 중심의 빈번한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가 호재보다는 약재성 재료에 더 민감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함. 그러나 코스피의 2분기 이익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으며, 한동안 반도체 쓸림 현상의 반대 급부로 장기간 주가가 눌러 있었던 전력기기, 방산, 바이오 등 여타 업종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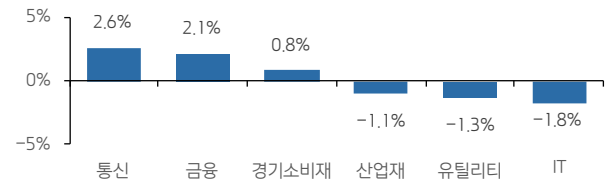
또 지난 5월~6월 중순에 비해 반도체 이외의 업종 전반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가했던 미국 시장 금리 부담도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중립 이상의 요인. 이를 고려 시 금일 반도체 약세가 나오더라도, 증시 전반에 걸친 자금 이탈이 아닌 여타 업종으로 수급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지수 하단이 지지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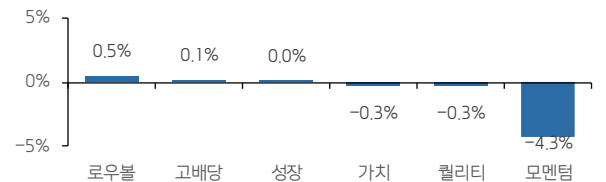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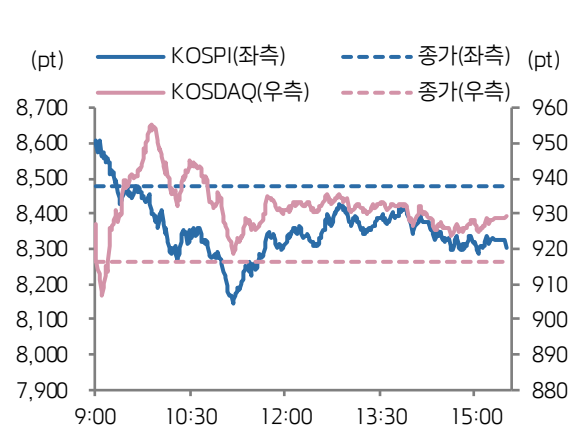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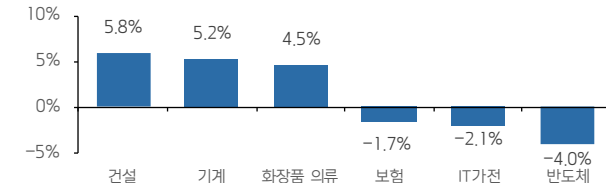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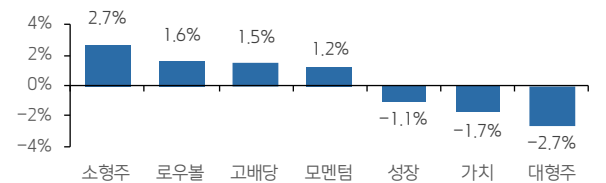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94.38	+1.73%	+8.28%	GM	75.52	-2.02%	-7.13%
마이크로소프트	384.28	+3.02%	-20.54%	일라이릴리	1,191.74	-0.64%	+10.89%
알파벳	361.21	+1.07%	+15.4%	월마트	108.82	-3.92%	-2.32%
메타	612.91	+8.81%	-7.15%	JP모건	334.07	+2.06%	+3.68%
아마존	241.70	+1.41%	+4.71%	엑손모빌	136.28	-0.32%	+13.25%
테슬라	425.30	+1.12%	-5.43%	세브론	165.69	-0.04%	+8.71%
엔비디아	197.58	-1.25%	+5.94%	제너럴일렉트릭	108.82	-3.9%	-2.3%
브로드컴	369.34	-2.23%	+6.71%	캐터필러	991.41	-6.9%	+73.06%
AMD	540.88	-6.89%	+152.56%	보잉	218.58	+0.97%	+0.67%
마이크론	1,032.28	-10.57%	+261.68%	넥스트에라	86.37	-1.6%	+7.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8,303.41	-2.04%	+97.04%	USD/KRW	1,551.20	+0.11%	+7.76%	
코스피200	1,335.36	-2.58%	+120.36%	달러 지수	101.40	+0.21%	+3.13%	
코스닥	929.35	+1.44%	+0.42%	EUR/USD	1.14	-0.39%	-3.14%	
코스닥150	1,674.35	+0.69%	+8.21%	USD/CNH	6.79	+0.04%	-2.59%	
S&P500	7,483.23	-0.22%	+9.32%	USD/JPY	162.58	+0.02%	+3.75%	
NASDAQ	26,040.03	-0.66%	+12.04%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2,305.24	-0.03%	+8.83%	국고채 3년	3.790	+9.3bp	+83.9bp	
VIX	16.59	+0.85%	+10.97%	국고채 10년	4.205	+13.5bp	+82bp	
러셀2000	3,012.59	-0.39%	+21.38%	미국 국채 2년	4.174	+0.2bp	+70.1bp	
필라. 반도체	13,353.28	-6.27%	+88.52%	미국 국채 10년	4.479	+1.4bp	+31.2bp	
다우 운송	21,959.76	+0.97%	+26.52%	미국 국채 30년	4.970	+1.9bp	+12.7bp	
상해종합	4,112.45	+0.44%	+3.62%	독일 국채 10년	2.878	+1.8bp	+2.3bp	
항생 H	7,558.30	-0.62%	-15.21%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922.64	+0.58%	-9.74%	WTI	68.58	-1.32%	+20.23%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1.57	-1.85%	+17.62%
Eurostoxx50	6,282.50	-0.72%	+8.48%	금	4,082.40	+1.09%	-8.06%	
MSCI 전세계 지수	1,117.95	-0.22%	+10.18%	은	60.09	+1.02%	-14.9%	
MSCI DM 지수	4,825.50	+0.73%	+8.92%	구리	612.35	-1.11%	+7.77%	
MSCI EM 지수	1,722.89	+0.94%	+22.68%	BDI	2,501.00	+0.44%	+33.24%	
MSCI 한국 ETF	185.50	-8.12%	+90.8%	옥수수	442.25	+1.43%	-3.96%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00.00	+1.82%	+9.94%
비트코인	60,068.68	+2.43%	-31.47%	대두	1,149.25	+0.48%	+7.96%	
이더리움	1,616.49	+2.71%	-45.71%	커피	309.90	+4.54%	-3.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